



남원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실현단 모니터링

남원시는 19일부터 시청 중회의실에서 3일간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실현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성과 목표 달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 37명, 지역사회보장 실무부와 위원과 시민 30여 명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금년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인부실 서비스 사업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 등 총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중점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돈독수당 지원 △남원 인제학당 건립 등 8개 사업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중증질환자 가정에 선풍기 등 지원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여름철 막바지 무더위에 대비해 관내 산청 특례대상자(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가정에 냉방 이불과 선풍기, 양(우)산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가구별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 결과로, 폭염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금동 동장의 '1일 1가구 소통행정'은 매일 한 가구 이상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생활 여건, 건강상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연결하는 주민 밀착형 복지 실천 활동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자체 점검

남원시 죽항동 장(임접숙)은 장애인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전기 기능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정비로 장애인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충전기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편 임접숙 죽항동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보수 및 개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독거어르신 집에 안전바 설치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과 남원지역협력혁신센터(센터장 이지선)가 운봉읍 소소한 집수리 봉사단의 첫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99세 장교 수급자 독거어르신 집에 안전바를 설치했다.

봉사단은 어르신 댁 문 입구와 화장실,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총 21가구에 안전바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농촌 돌봄공동체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민·관 협력으로 결성된 12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치어리더 이다혜와 완주 여행, 대만 관광객 이끌다

대승한지 · 오성한옥마을 일원서 팬미팅 · 릴스 촬영 150여명 참여

완주군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치어리더 이다혜 팬미팅 행사와 릴스 촬영을 대승한지마을과 오성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다혜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완주·전주 여행'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만 관광객 150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인 팬미팅은 소양면 치유관광지인 대승한지마을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와 대만 최대 여행사인 Coda 여행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래밍 치어리더 이다혜의 전복 방문을 계기로, 대만 인바운드(방한 외래관광객) 확대와 전복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특히, 팬미팅과 함께 진행된 릴스 촬영은 한옥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아원고택과 소양고택에서 이다혜가 개량한복을 입고 촬영해 완주만의 감성여행 분위기를 담아냈다. 또한, 세 마리 봉황이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서린 고찰 위봉사에서서는 고즈넉한 사찰의



정취와 평온한 풍경을 영상에 담아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완주의 매력이 한층 부각됐고, 감성여행 도시 완주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상업정보고 관악부 특별부 대상 수상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관악부(지휘 김이영)가 최근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특별부 대상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학생과 졸업 동문이 함께 무대에 오른 특별부 부문에서 행진곡 Blue Sky와 서곡 Goddess of Fire(불의 여신) 두 곡을 연주,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상업정보고 관악부는 여름 음악 캠프를 통해 기량을 쌓고 팀워크를 다져왔다. 또한 학부모 초청 연주회를 통해 이번 대회 연주곡을 미리 선보이기도 했다.

관악부를 지도한 유연수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버텨낸 끈기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경합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힘으로 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송천1동 명품짜뽕, 지역민 무료 급식봉사 이어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지역 음식점 명품짜뽕(대표 권정)이 지난 2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송천1동 주민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명품짜뽕은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의 짜장면을 대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고, 지난 18일에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재우)도 함께 배식과 안내를 도우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허재우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명품짜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송천1동장은 "2년째 이어진 명품짜뽕의 무료 급식



봉사는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광원기계, 김제시에 성금 10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유)광원기계(공동대표 정경수, 김영태)가 19일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경수·김영태 공동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유)광원기계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현재까지 4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했으며, 올해는 미안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국경을 넘어 따뜻한 온정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원에농협, 농협중앙회 '총화상' 영예

김제원에농협(조합장 김광식)이 농협 창립 64주년을 기념하여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제원에농협은 탁월한 경영 성과와 조합원 중심의 확고한 경영 철학을 인정받아 전국 1,110개 농·축협 중 단연 돋보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총화상은 임직원 간의 인화단결, 사회공헌활동, 농정 활동, 사업 및 경영실적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수여되는 농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김제원에농협은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조합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김제원에농협은 지역 특화 작물인 콩 수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밀과 콩 재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영농 기술 향상을 도왔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성과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부 사업을 꾸준히 펼



쳐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이는 조합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광식 조합장은 "이번 총화상 수상은 저희 농협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지역복지사업 중간점검 실시

정읍시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3개 읍면동들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각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난 5월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하며,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앞두고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성과 확인을 넘어 실제 평가와 연계해 복지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은, 을지연습 일환 'JB직장어린이집 화재대피훈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8일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JB직장어린이집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화재대피훈련은 덕진소방서와 협력하여 화재 시 대피절차 이해와 수직·경사구조대 등의 피난기구 사용법 숙달을 돕는 안전통제요령 및 화재안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4~5세 유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신호 확인을 시작으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파악, 경사 강하식 구조대를 사용한 안전구역으로의 대피 요령 숙달 등을 교육했다.

전북은행은 JB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주기적인 화재대피훈련을 실시, 안전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지역 내 외국인 한국어교육 개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지난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무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군 외국인지원센터운영사업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무주군 외국인지원센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한국어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의 한국어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